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가족계획 , 배우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 가족으로 뭉친다! 빛나는 호흡의 대본 리딩 현장 공개!

2024. 2. 28.



김곡, 김선 감독, 배우 배우나, 백윤식, 류승범, 이수현, 로몬

- 쿠팡플레이 시리즈 '가족계획'이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가족계획'은 살아남기 위해 가족으로 위장한 특수 능력자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맞서 남다른 방법으로 해치워나가는 이야기

대본 리딩 현장에는 크리에이터 김정민과 김곡, 김선 형제 감독, 주연 배우 배우나, 류승범, 백윤식, 로몬, 이수현이 모두 모여 작품에 대한 애정과 뜨거운 의지를 나누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대본 리딩이 시작되자 각 배우들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순식간에 몰입하며 첫 만남부터 빛나는 호흡을 선보였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이자 아이들에게만큼은 다정한 엄마 '한영수' 역의 배우나는 “대본이 너무 재미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었다.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배우분들이 합류하게 되어 대본 리딩 하기 전부터 설레고 떨렸었다” 라 며 첫 만남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능력을 감춘 채 어딘가 모르게 소심하지만 아내에게만큼은 무한 사랑꾼 아빠 '백철희' 역의 류승범은 “이 작품이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한몫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라 며 의지를 다졌다. 또한 까칠하지만 내심 가족들을 챙기는 할아버지 '백강성' 역의 백윤식 역시 “리딩을 통해 많은 걸 느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라 며 소감을 전했다.

여기에 따뜻하고 온화한 아들 '백지훈'역의 배우 로몬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영광이었다” 라 며 작품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전했다. 지훈과 동갑내기이자 까칠하고 예민한 딸 '백지우' 역으로 처음 연기에 도전하는 이수현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긴장했다.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리딩을 할 수 있어 되게 영광이었다” 라 며 소감을 밝혔다.

신선한 발상, 예측을 뛰어넘는 반전, 색다른 스토리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가족계획'은 2023년 12월 말 크랭크인하여 촬영에 돌입했으며, 2024년 쿠팡플레이에서 공개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